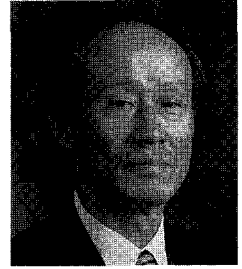


韓 · 日파렛트협회 업무제휴협정 체결 배경과 향후 과제



(사) 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 은 규

1. 한 · 일파렛트협회 업무제휴협 정 체결의 배경

- ① (사)한국파렛트협회(KPA)와 (사)일본파렛트협회(JPA)는 1997년도부터 양 협회가 추진하여오던 양국 파렛트 협회의 업무제휴에 관한 협정을 2000년 1월 18일 일본 동경의 일본공업협회 회관에서 양 협회 회장 및 임원들과 일본 물류매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결하였다. 조인식은 정각 12시에 양측 대표들에 대한 소개와 양협회 회장인사가 있는 다음 업무제휴 협정서에 양국협회장이 서명하여 교환하고 제휴기념패 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 ② 이렇게 양국 협회가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1997년부터 약 3년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양 협회의 설립목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감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협회가 1996년 설립되어 이제 4년이 채 안된 걸음마 단계로 비유한다면 JPA는 1964년 설립되어 그 역사가 36년으로서 일본의 물류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그동안 많은 연구와 조사, 정보자료의 축적, 기술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은 반면, JPA측은 우선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일본 파렛트업계와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특히 물류표준화의 핵심이 되는 표준파렛트의 규격이 동일하여 물류



▲ 업무제휴협정체결 모습(사진왼쪽이 JPA하나오키 회장, 오른쪽이 KPA 장문영 회장)

시스템이 같으므로 앞으로 국제 표준화 분야 (ISO등)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양국 모두 파렛트 업계가 중소기업이며 원자재(특히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국 파렛트 업계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2. 한 · 일파렛트협회 업무제휴협정 체결의 내용

이번에 조인된 업무제휴협정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협정의 목적
협정서 제1조는 먼저 양국 파렛트업계의 상호 친밀한 우호를 증진시키고, 둘째, 파렛트 및 물류에 관한 정보, 자료, 기술 등의 교환을 통해 양국 파렛트협회의 발전과 양국의 물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업무제휴 협정기념패의 교환모습

② 회원상호 교류

협정서 제2조는 양협회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제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 양 협회는 연구회, 연수회, 친목회 등의 기획입안에 협력하며
- 양 협회가 자국내에 관여하는 각종행사 등에 소속회원 및 사무국이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③ 정보자료등의 교환

제3조는 양 협회가 자국내에서 발행된 파렛트 및 물류관계 정기간행물, 정보, 자료 등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④ 표준화의 추진

제4조에서 양국 협회는 아시아 각국의 파렛트 및 유니트로드용 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향후 과제

향후 과제는 양국의 협회가 상호 이익이 증진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를 크게 몇가지 부문으로 분류해보면

① 회원 상호 교류 분야

양 협회 공동추진의 연구회, 연수회, 친목대회, 회원교환방문,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먼저 금년도에 1차로 제주도에서 합동 연수회를 구상하고 있다.

② 정보자료 교환 분야에서는

- 회원간의 기술협력(플라스틱, 철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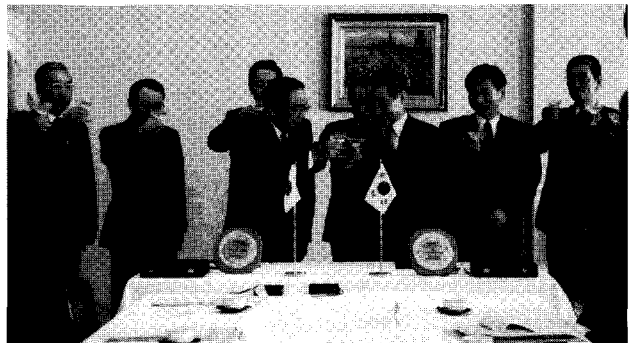
- 파렛트 관리자 제도 도입 검토
- 각종 조사연구 자료 교환
- 물류 및 파렛트 관련 정기간행물의 교환

③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 ISO TC 51(파렛트 기술위원회)에 공동보조로 국제무대에서 협력함으로써 CD 6780(파렛트 주요규격 및 허용오차)개정안 (금년 10월 일본동경에서 개최되는 ISO/TC 51회의 공식 의제)을 통과시켜 한국의 표준파렛트인 T-11형(1100×1100mm)이 ISO의 공식 국제표준파렛트로 확정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 ASIA 물류표준화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 국제 원자재(목재분야) 시장에서의 공동보조, Recycle 및 Pool System 구축
- 케이스별로 국제분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특수 파렛트의 제작기술, 생산, 납품분야를 서로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 등

이제 양국의 협회가 할 일은 이러한 목표를 정하여 상호 확인하고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 서로 같은 분야의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모두의 이익이 되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양 협회 회원들이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회원들이 '나홀로'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라는 발전적 인식하에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 조인식 후 양국협회 임원 건배